

[어원 탐구]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어원 몇 가지(1)

조항범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인터넷의 지식 관련 정보 사이트에는 우리말 어원이나 유래에 대한 정보가 넘쳐난다. 특정 단어나 관용 표현의 어원과 유래를 묻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고, 이에 대한 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우리말 어원과 유래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다.

네티즌들이 그 어원과 유래를 알고 싶어 하는 단어나 관용 표현은 그들이 평소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거나 자주 쓰는 말일 것이다. 네티즌들이 주로 십대라는 점에서 보면 어원 정보 사이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나 관용 표현은 십대의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막상 관심의 정도를 고려하여 순위를 따져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다양한 연령층이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단어나 관용 표현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관심이 높은 “갈매기살, 감쪽같다, 거덜이 나다, 게거품, 노가리, 노다지, 판지, 빈대떡, 삼살개, 순대, 시치미 떼다, 아사리판, 억지 춘향이, 오빠, 왕따, 외상을 굶다, 육개장, 행주치마, 환장” 등이 어떤

특정 연령대나 세대에서만 관심을 갖고 쓰일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이다.

이들 여러 단어나 관용 표현의 어원과 유래에 대한 정보가 지식 관련 정보 사이트에서 활발히 오고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장려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변에 있다. 답변이 기왕에 이루어진 논의를 소개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답변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어원설을 그대로 답습하기도 하여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오고가는 어원 정보는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보로서 가치를 갖고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의 인터넷 통신망에는 이러한 점검 장치가 없다. 잘못된 어원 정보를 그냥 방치하면 우리말이 크게 왜곡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데도 그러한 점검 장치를 애써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것도 상업주의인지 모를 일이다.

물론 누가 나서서 그러한 잘못을 지적한 적도 없는 듯하다. 그러는 사이 우리말은 더욱 왜곡되고 심하게 변질되고 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어원 정보 유통 양상을 그저 관망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잘못된 어원 정보에 의한 우리말 왜곡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지식 관련 어원 정보 사이트에 자주 등장하는 특정 단어나 관용 표현에 대한 어원과 유래에 주목하여 정보의 오류 실상을 알리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선 ‘감쪽같다’, ‘개차반’, ‘외상을 굶다’를 대상으로 한다.

II

1. 감쪽같다

‘감쪽같다’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하나 아직 정설로 합의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어원 정보 사이트에는 특정 어원설이 정설인 양 소개되어 있다. 그 어원설이 잘못된 것일 수 있어 ‘감쪽같다’의 어원에 대한 사이트의 어원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마도 ‘감쪽같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감쪽’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고 애를 쓸 것이다. ‘감쪽같다’의 어원은 ‘감쪽’이라는 단어가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국어사전을 뒤져보아도 ‘감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감쪽’은 언제나 ‘같다’와만 연결되어 쓰이고 있을 뿐이어서, ‘감쪽같다’라는 단어와 그 부사형 ‘감쪽같이’만 사전에 실려 있는 것이다.

이 ‘감쪽’이 ‘같다’와 결합되어 쓰이는 것을 보면 ‘감쪽같다’는 본래 ‘감쪽과 같다’라는 표현에서 조사 ‘-과’가 생략된 뒤 축약된 형태로 간주된다. 그러면 ‘감쪽과 같다’에서의 ‘감쪽’은 무엇인가? 이 ‘감쪽’의 정체만 밝혀지면 ‘감쪽같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밝혀진 것이나 진배없다.

이 ‘감쪽’에 대해서는 ‘곶감의 쪽’이라는 설이 널리 퍼져 있다. 그리하여 ‘감쪽같다’라는 단어의 유래를 곶감의 쪽을 먹는 것과 같이 날쌔게 한다는 데서 나온 말로 설명한다. 곶감의 쪽은 아주 달고 맛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빼앗아 먹거나 나누어 달라고 할까 보아 빨리 먹을 뿐만 아니라 흔적도 없이 말끔히 다 먹어 치우는데, 이러한 행위를 토대로 ‘감쪽같다’라는 말이 생겨나고 이에 ‘일을 빨리 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처리하다’라는 비유적 의미가 생겨난 것으로 본다.

‘감쪽같다’에 대한 이러한 어원설은 이곳저곳에서 참고 문헌을 달아 놓은 것을 보면 박일환(1994)이 크게 영향을 미친 듯한데, 일반 어원 사전에서도 이 설을 그대로 좇고 있다. 아울러 어원 정보 사이트에서도 이 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일반 어원 사전에서조차 이 설을 따르고 있으니 인터넷에서야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물론 ‘감쪽’이라는 말이 소설 <임격정>의 “정수리에 감쪽을 붙인 풀이라는 천생 시골 백정의 딸이야.”에서 보듯 ‘곶감의 쪽’이라는 의미로 쓰이

고 있는 것을 보면, ‘감쪽같다’를 ‘꽃감의 쪽을 먹는 것과 같이 날쌔다’라는 행위에서 온 말로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꽃감의 쪽을 먹는 것과 같다’와 같은 긴 표현이 ‘감쪽같다’와 같은 단어 구조로 축약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감쪽같다’라는 단어가 아무리 ‘감쪽’을 ‘꽃감 쪽’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꽃감의 쪽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꽃감의 쪽을 먹는 것과 같다’에서 그 어원을 구하는 것은, ‘감쪽’을 ‘꽃감의 쪽’으로 정해 놓고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과 같다.

한편, ‘감쪽’을 ‘감을 쪼갠 한 부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감쪽같다’의 어원을 ‘감쪽을 맞추어 놓은 것과 같다’에서 찾기도 한다. ‘감’을 자른 뒤에 그 쪽을 다시 맞추어 놓으면 쪼갠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데 그에 착안하여 ‘감쪽같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남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아무런 표가 없다’라는 비유적 의미가 생겨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감을 쪼갠 부분’을 뜻하는 ‘감쪽’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사과쪽’이라든지 ‘배쪽’이라든지 하는 유사 단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면 ‘감쪽’을 ‘감을 쪼갠 한 부분’으로 이해한 뒤 그것에 기대어 ‘감쪽같다’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감쪽을 맞추어 놓은 것과 같다’라는 긴 표현이 줄어들어 ‘감쪽같다’라는 단어가 될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설은 더더욱 신빙성이 없다.

그렇다면 ‘감쪽’의 어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그 어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감쪽’이라는 단어가 왜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쪽’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이것이 다른 단어로부터 변형된 어형이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다른 단어로 ‘감접’을 떠올릴 수 있다. ‘감접’이 변하여 ‘감쪽’으로 변했다고 보는 것이다. ‘감접’은 ‘감나무 가지를 다른 나무 그루에 붙이는

접'을 뜻한다. 대체로 감접은 '고염나무'를 이용한다. 접을 붙일 때 그 바탕이 되는 나무를 '대목'이라는 하는데 '감접'의 경우는 '고염나무'가 대목이 된다. 고염나무 동아리 대목을 날카로운 칼로 벗긴 다음 눈이 달린 감나무의 가지를 붙이고 끈으로 칭칭 감아 두면 '고염나무'와 '감나무'의 수액이 합쳐져 접이 붙는다. 접을 붙인 다음해에는 '고염나무'와 '감나무'가 밀착되어 접을 붙인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감접을 붙인 것처럼 흔적이 없는 상태'를 '감접같다'라고 표현한다.

'감접같다'가 <조선말큰사전>(1947)이나 그 이후의 몇몇 큰 사전에 당당히 실려 있다. 그리고 이들 사전에서는 '감접같다'에서 '감쪽같다'가 나왔다는 유래 설명까지 곁들이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쓰여진 김동진(1927)이나 <朝鮮辭源漫談(3)>(1934) 등에서도 '감쪽같다'를 '감접같다'에서 나온 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접같다'가 '감쪽같다'로 변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이는 음운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감접같다'가 '감쩍같다'로 발음 난 다음 '쩍'의 받침 'ㅂ'이 'ㅍ'으로 교체되어 '감쩍같다'로 변화했을 것이다. '감쩍같다'가 <朝鮮語辭典>(1938), <조선말큰사전>(1947) 등에 표제어로 당당히 실려 있다.

'감쩍같다'가 '감쪽같다'로 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음 조화 현상으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로 보면, '감접같다>감쩍같다>감쪽같다>감쪽같다'와 같은 변화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는 '감접같다'는 물론이고 '감쩍같다'도 실려 있지 않다. 그럼으로써 '감쪽같다'와 '감쩍같다', 그리고 '감접같다'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감쪽같다'가 '감접같다'에서 온 말이라는 지적은 몰라도 '감접같다'라는 단어만큼은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2. 개차반

‘개차반’은 사전에 ‘개가 먹는 차반인 똥이라는 뜻으로, 언행이 몹시 더러운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기술되어 있다. 이 기술만으로도 ‘개차반’의 어원 설명은 끝난 느낌이다. 기왕의 ‘개차반’에 대한 어원 논의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원 정보 사이트에서만큼은 ‘개차반’의 어원 설명이 일반적인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

‘개차반’은 ‘개’와 ‘차반’이 합성된 단어임에 틀림이 없다. ‘개’는 분명 ‘犬’의 뜻이다. ‘육 속의 개’라고나 할까? 우리말 육 가운데에는 ‘개’ 자 돌림자가 상당히 많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단연 ‘개새끼’일 것이다. 이를 필두로 ‘개 같은 놈(년)’, ‘개놈’, ‘개뼈다귀 같은 놈’, ‘개만도 못한 놈’, ‘개똥상놈’, ‘개불상놈’ 등 너무나 많다. 물론 ‘개차반’도 ‘개’ 자 돌림 육의 하나이다.

‘개’는 욕칭에 많이 이용될 뿐만 아니라 ‘질이 떨어지는’, ‘헛된’, ‘쓸데없는’ 등과 같은 부정적 의미를 띠는 접두사로도 쓰인다. ‘개떡, 개꿈, 개나발, 개소리, 개수작’ 등에서 보이는 ‘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개-’가 붙으면 예외 없이 ‘하찮고 쓸데없는 물건이나 대상’을 지시하게 된다.

이렇듯 ‘개’가 욕칭에 많이 이용되고, 또 부정적 의미의 접두사로까지 쓰이는 것은, ‘개’라는 지시물의 비천한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똥오줌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배설하고, 누가 보든 말든 아무 곳에서나 흘레를 하며, 먹는 것 앞에서는 비굴하게 알랑대는 ‘개’의 속성은 비천하기 짝이 없다. 바로 그러한 속성으로부터 천한 욕이 나오고 또 부정적인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개’에 대한 이미지가 과히 나쁘지 않다. 오히려 애완 동물로서 늘 가까이하며 귀여워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니 그들의 시각으로는 ‘개’를 심하게 학대하고 식용까지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평소에는 더럽고 추하다고 욕을 하면서도, 그 고기는 아주 맛있게 먹는 속내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죽어서야 평가를 받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다. 싫어하고 욕하면서도 개고기를 찾는 것은 개고기의 맛이 일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고기’의 맛이 유별난 것은 ‘개’가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개’는 ‘똥’을 포함하여 먹지 않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먹성이 좋다. 맛 좋은 제주도 산 ‘똥돼지’를 생각하면 개고기의 ‘맛’은 개가 즐겨먹는 ‘똥’에 있는지도 모른다.

‘개차반’은 바로 이 ‘똥’에 지나지 않는다. ‘개’가 ‘犬’의 뜻이고, ‘차반’이 ‘음식’의 뜻이기 때문이다. ‘개가 먹는 음식’이니 ‘똥’이 분명하다. ‘차반’은 15세기 문헌에서도 보이듯 오래 전부터 쓰여온 단어로 한동안 ‘음식’이나 ‘반찬’의 뜻으로 쓰였다. 이는 한자어 ‘茶飯’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국어 사전에는 ‘차반’에 ‘음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달려 있다. ‘차반’을 ‘음식’으로 보든 ‘맛있는 음식’으로 보든 ‘개차반’은 ‘개가 먹는 음식’인 ‘똥’인 것만은 분명하다.

‘똥’은 짐승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악취가 나는 배설물이기에 더럽고 불결하다. 그래서 ‘개차반’에 ‘언행이 몹시 더러운 사람’이라는 비유적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그 사람 성질 정말 개차반 같다.”,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라 아예 내놔지.” 등의 표현에서 ‘개차반’의 의미가 잘 드러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이 있다. ‘개차반’의 ‘차반’을 ‘채반(-飯)’에서 온 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원 정보 사이트의 설명에는 ‘차반’이 ‘채반’에서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새색시가 근친(觀親)한 뒤 시집에 올 때 해 가지고 가는 음식’이 ‘채반’인데, ‘개차반’의 ‘차반’과 의미상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반’이 변하여 ‘차반’이 되었다는 것은 일견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개채반’이 변하여 ‘개차반’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데, ‘개채반’이라는 단어가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개채반’이 ‘개차반’으로 변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취하기 어렵다.

‘개차반’이라는 단어는 옛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사전으로는 20세기 초의 <朝鮮語辭典>(1938)에서 처음 보인다. 그렇다고 이 단어의 역사가 아주 짧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부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어 사용이 억제된 것이 이 단어가 문헌에 쉽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한다.

3. 외상을 굶다

‘외상’이라는 말은 ‘굶다’라는 동사와 빈번히 어울려 쓰인다. 이른바 ‘외상을 굶다’라는 표현이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표현 속의 ‘외상’의 어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상을 굶다’라는 표현이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 논의가 풍성하지 못하다.

특히 ‘외상을 굶다’라는 표현의 유래에 대해서는 박일환(1994: 154-155)이 거의 유일한 설명인 아닌가 한다. 그래서 그런지 어원 정보 사이트에서도 이 설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물론 그 설명이 크게 나무랄 데가 없어 어원 정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하여 이 표현의 유래를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상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외상을 후하게 주기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외상을 하고 외상을 주는 일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드문 일이라고 하니 ‘외상 행위’는 어찌 보면 우리의 독특한 상거래 행위가 아닌가 생각도 해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상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예전부터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외상을 주고받는 데 익숙해진 것일까? 일설에는 친족을 중심으로 모여 살다 보니 남다른 정이 싹트고 또 믿음이 형성되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배려에서 외상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말하자면 상부상조의 전통에서 외상 거래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수확이 끝나는 가을철에야 목돈을 만지게 되는 농경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춘궁기(春窮

期)에 외상을 지는 습성이 생겨났고, 그것이 굳어져서 외상 행위에 익숙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외상’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외상’은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까지 망치게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외상’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인가? ‘외상’은 분명 고유어는 아니고 한자어이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외상’에 대응되는 한자를 적시하지 않고 있어 자칫 ‘외상’을 한자어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큰사전>(1957)에서는 ‘外上’을 들어 ‘외상’의 취음자(取音字)로 설명한다. 이 사전에서는 ‘외상’의 동의어로 ‘외자’와 ‘외재’까지 들고 있다. 그런데 <큰사전>보다 먼저 나온 <朝鮮語辭典>(1920)과 <朝鮮語辭典>(1938)에서는 ‘외상’을 아예 한자 ‘外上’으로 보고 있다. 옛시조 “아희야 點心도 흘연이와 外上 탁주 내여라”에서도 ‘外上’으로 적고 있어 ‘外上’설이 설득력이 있다.

김민수 편(1997: 793)에서는 “외상은 ‘外上’으로 표기되는 한자말로서 우리나라 관습에서 ‘還上’을 ‘환자’로 읽듯 이 ‘外上’을 ‘외자’로 읽었는데, 현재는 ‘외상’으로 굳어졌다.”로 설명함으로써 ‘外上’설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외자’라는 단어의 어원까지 밝히고 있다. 이 참에 옛시조에 나오는 ‘外上’이 어떻게 읽혔는지 궁금하다. 만약 ‘외자’로 읽혔다면 ‘外上’이 취음자가 아니라 ‘외상’의 본말임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외상’은 예전에는 주로 술집에서 이루어졌다. 그 술집도 싸구려 술집인 선술집이었다. 막걸리 몇 사발 사 먹을 돈도 없으면서 술 없이는 못 사는 주당(酒黨)들이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외상’이었다. 술 외상이 얼마나 흔했으면 ‘외상술’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한다.

얼큰히 취한 술꾼이 그동안의 안면을 무기로 “아줌마(주모), 외상이야. 달아 놓으시오.”라고 하면 술어미는 상습적인 외상이 못마땅하지만 마지못해 응대해 주곤 했던 것이 예전 술집 풍경이다. 그런데 대개의 선술집 주모는 일자무식이어서 외상 사실을 글로써 장부에 적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벽에다가 마신 술 잔수만큼 작대기를 긋는 방법이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작대기만 긋는 것이 아니다. 외상술을 먹은 사람의 특징을 벽에 그린 뒤에 그 밑에 먹은 잔 수만큼 작대기를 긋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가령, 코가 큰 사람은 코를 그려 넣고, 얼굴에 사마귀가 있는 사람은 점을 찍어 넣고, 쌍둥이 집 남자라면 사람 머리를 둘 그려 넣은 다음 그 밑에 줄을 긋는 것으로 외상 장부를 대신했던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외상을 긋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외상 작대기를 벽에 긋다’가 될 것이다.

외상술에 이골이 난 술꾼들은 그 ‘작대기’를 ‘어그 라인’이라 부르며 멋을 부려 말하기까지 하였다. ‘어그’는 ‘긋다’의 활용형 ‘그어’를 거꾸로 말한 것이며, ‘라인’은 작대기 선을 영어로 말한 것이다. 이런 말장난을 할 줄 아는 술꾼이라면 그래도 낭만을 아는 술꾼이 아니었을까 한다.

물론 외상을 할 때 ‘긋는’ 행위는 술집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전의 반찬 가게나 푸줏간에서도 외상한 물건값을 ‘긋는’ 방법으로 표시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벽에다가 작대기를 긋는 것이 아니라 ‘ئم대’라는 막대기에 길고 짧은 금을 새겼다. ‘ئم대’에다 외상한 물건의 분량만큼 금을 그어놓고 나중에 몰아서 계산을 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ئم대를 긋다(물건을 외상으로 사고 장부에 달다)’이다.

술을 외상으로 먹을 때는 벽에 작대기를 긋고, 물건을 외상으로 살 때는ئم대에 금을 그으니, ‘외상’과 ‘긋다’가 어울려 ‘외상을 긋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III

인터넷의 지식 관련 정보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어원 정보는 기왕의 어원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왕의 어원 해석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를 따지는 점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정보가 사이트에

그대로 흘러들 수 있다. 실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소개한 ‘감쪽같다’, ‘개차반’의 경우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 ‘감쪽같다’의 ‘감쪽’을 ‘곶감 쪽’으로 보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감접’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말큰사전>(1947)에 보이는 ‘감접같다’가 ‘감쪽같다’와 같다는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감접같다’이 ‘감쪽같다’로 변할 수 있고, 또 ‘감접같다’라는 단어가 실제 존재했으므로 ‘감쪽같다’를 ‘감접을 붙인 것 같다’로 해석할 수 있다.

‘개차반’의 ‘차반’을 ‘채반(-飯)’의 변형으로 보는 것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차반’이라는 말이 이른 시기에 ‘음식’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었고, 최근에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차반’의 어원을 굳이 ‘채반(-飯)’에서 찾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외상을 굶다’의 경우는 ‘감쪽같다’나 ‘개차반’과는 그 처지가 좀 다르다. 그 유래 설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표현이 1900년대 이후 서울 선술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외상’이라는 상거래 행위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면 그것을 표시하는 방법도 그 행위와 함께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金東縉(1927), 四千年間朝鮮俚語解釋, 덕흥서림.
 김민수 편(1997), “우리말 語源辭典”, 서울: 태학사.
 미 상(1934), “朝鮮辭源漫談(三),” 월간야담 3호.
 박일환(1994), “우리말 유래사전”, 우리교육.
 조항범(2003), “선인들이 전해 준 어원 이야기”, 서울: 태학사.